

# ‘중화민족’의 정념적 재구성

## —1930년대 연안의 성자 노면 베쑨에 관한 서사 연구—

이승희\*

1. 대중 선전과 정념
2. ‘분노’의 생산: 공공의 적 만들기
3. 애도에서 ‘우애’로: 민족주의와 국제주의
4. ‘숭고’한 사명: 사회주의 전사의 양성
5. 정치적 무기로서의 ‘도덕’

### 국문요약

이 논문에서는 1930년대 연안에서 생산된 노면 베쑨에 관한 서사-뉴스영화, 추도문, 잡지 기사를 대상으로, 중국 공산당이 ‘중화민족’을 분노, 우애, 숭고라는 정념적 코드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고찰한다. 당시 공산당은 노면 베쑨의 ‘외국인’이라는 타자적 위치를 이용해서 내부 구성원들 간의 유대를 강화해나갔다. 즉 중국인과 외국인이 ‘분노’를 공유하도록 이끌어 일본군이라는 ‘공공의 적’을 만들어냈으며, ‘우애’의 발명을 통해 ‘중화민족’을 전 세계 프롤레타리아트의 대표로 재정의했고, ‘숭고’의 정서를 개발함으로써 무수한 차이를 지닌 개인들을 사회주의 전사로 키워냈다. 정념은 본래 개인이 자신의 내부로부터 느끼는 흥취, 희로애락, 고통과 환희로서 존재한다. 하지만 노면 베쑨 서사들에서 개별적 정념은 점차 집단적 규범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으며, 결국 도덕적 양식

---

\* 한양대 강사

으로 고착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유동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이 물질적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근대 정치주체로서의 대중의 역량을 간파하고, 그들의 정념을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도덕적 명분을 구축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주제어 : 노먼 베슨, 대중선전, 정념, 분노, 우애, 숭고, 반제국주의, 내셔널리즘, 사회주의, 국제주의, 중화민족, 도덕적 명분)

## 1. 대중 선전과 정념

1930년대 옌안에서 수행된 대중 선전 가운데 세 가지 키워드를 꼽자면 ‘항일’, ‘중국’, ‘공산당’이다. 이는 각각 반제국주의, 내셔널리즘, 사회주의를 반영하는데, 주시해야 할 것은 이것들이 서로 다른 차원에 속하는 이데올로기로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는 수단이 기어코 ‘국가’의 외피를 걸쳐야 할 까닭은 없으며, 설령 ‘중국’이라는 국가 기구가 요청된다고 해도 그것이 꼭 사회주의 체제를 구비해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이 세 차원을 넘나들며 맥락이 다른 이데올로기들을 성공적으로 융합해냈다.

사회주의 정당에서 국가의 동량으로, 즉 이념적 차원에서 행정적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은 매개물을 필요로 했다. 이에 ‘중화민족’이 새롭게 제기되었다.<sup>1)</sup>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구사회의 피억압자였던 농민이

1) 물론 ‘중화민족’이 옌안 시기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아니다. 대륙에 거주하는 이들이 ‘중화민족’의 이름으로 소환되기 시작한 것은 아편전쟁(1839~1842년)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옌안에서 ‘중화민족’은 새로운 함의를 지니게 되었다. 왕족, 귀족, 신사 계층이 아니라 사회주의 의식을 지닌 대중을 중심으로 재구성된 것이다.

국가 구성원의 핵심 인원으로 호출된 것이다. 농민을 필두로 노동자, 프티 부르주아지, 민족 부르주아지가 서열을 편성했다.<sup>2)</sup> 그러나 ‘사회주의’나 ‘국가’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지시되는 것과 달리 ‘중화민족’은 한없이 추상적인 개념이었다.<sup>3)</sup> 게다가 각지에 흩어져 있는 56개의 소수민족을 안고 가야 했으니, 아무리 계급적 성격을 강조한다 해도 그들 전체를 수렴하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이데올로기를 통한 사상적 유대만으로 구성원들을 통합하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자각한 중국 공산당은 영화, 잡지, 포스터, 문화 행사 등을 통해 인간의 감정선을 자극함으로써 ‘사회주의적 정념’의 형태를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산된 정념은 보조적인, 그러나 강력한 통합 기제로서 대륙 전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중화민족’이라는 하나의 우산 아래로 끌어 모으는 데 기여했다.

인간의 정념(affections)에 관한 연구는 최근 들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동향은 자신의 모태를 스피노자에게서 찾고 있는데, 스피노자는 『에티카』의 제3부 “정서의 기원과 본성에 대하여”<sup>4)</sup>에서 인간의 정념을 심리학의 영역에서 끌어내어 주체성을 형성하는 동력이자 사회적 관계를 구조화하는 계기로 제시한 바 있다. 안토니오 네그리는 ‘구성’ 개념으로 스피노자의 ‘정념’을 재조명했다. 네그리에 따르면, 인간은

2) 마오주의에서 상술한 네 계급의 연합은 ‘인민민주독재’ 개념으로 요약된다. 이 개념은 1949년에 공식적으로 선포되지만, 옌안 시기 통일전선 전략 속에서 이미 그 형태가 구체화된 것으로 간주된다. 모리스 마이스너, 김수영 옮김,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1』, 이산, 2004, 84-84쪽 참조.

3) 사회주의는 관념적 용어들로 구성되는 이론 체계이지만 뚜렷한 지향점과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제시한다. 한편 국가는 최소한 영토, 즉 국경선으로 구획되는 지리적 공간으로서 그 존재를 가시화할 수 있다. 그러나 중화민족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어휘로서 언어, 지역, 문화 별로 무수한 차이들을 내포한다.

4) B. 스피노자, 강영계 옮김, 『에티카』, 서광사, 2012, 149-237쪽.

이성을 통해 삶을 진전시키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정념적 행위 및 그 대립들과 마주치게 된다. 이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귀착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진리의 구성에 이르기도 한다. 그리고 매번 새로운 행동의 표현, 새로운 사태의 표현을 규정짓는다.<sup>5)</sup> 이 글에서는 정념의 생산적 구조에 초점을 맞추어, ‘공분(公憤)’·‘우애’·‘숭고’의 정념이 중국 대륙에 거주하는 수많은 개인들을 ‘사회주의 인민’의 대열에 합류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중화민족’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이끄는 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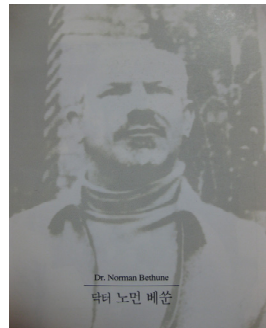
필자는 특히 ‘정념’을 ‘선전·선동(propaganda·agitation, 宣傳·煽動)’ 연구의 새로운 돌파구로 제시하고 싶다. 고전적인 ‘선전·선동’ 이론가들은 자연과학 영역에서 빌려온 ‘자극-반응’ 모델에 기초하여 정치체제와 대중의 관계를 규명해냈다. 예컨대 프리드리히와 브레진스키는 정치 권력이 대중의 자유로운 사고와 판단을 억압함으로써 “세뇌” 및 “인간의 비인격화”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그들이 의존한 ‘억압적 정권/수동적 대중’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는 선전·선동을 ‘조작된 전술’의 수준으로 축소시키면서 정치체제와 대중 간에 전개되는 역동적인 피드백 과정을 누락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에 최근의 연구자들은 선전·선동 이론의 사각지대를 조명할 수 있는 다양한 개념 및 패러다임을 모색 중이다.<sup>7)</sup>

5) 안토니오 네그리, 이기웅 옮김, 『전복적 스피노자』, 그린비, 2005, 219~220쪽.

6) Carl J. Friedrich·Zbigniew K. Br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1965, p. 10.

7) 예컨대 크리스토프 클라센(Christoph Classen)은 선전·선동을 네 가지 분석 영역으로 나눌 것을 제안한다. 첫째 대중 매체와 통신 매체의 제도적 구조, 둘째 구체적인 내용과 구성적 특징, 셋째 일반 대중은 대중 매체와 그것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의 문제, 넷째 사회적 전후 관계와 변화이다. 클라센은 이렇게 방법론적 ‘분절’을 통해 역사 현실을 맥락화하면 전통적인 선전·선동의 개념으로는 포착하기 힘들었던 사회적 동기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크리스토프 클라센, 권형진 옮김, 『두 가지 유형의 선전·선동? - ‘제3제국’과 동

필자로서는 ‘정념’이 선전·선동의 수취자인 대중 연구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정념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가로지른다. 정치체제는 특정한 정념을 생산하여 구성원들의 신체 위에 각인하고 이로써 자신의 권력의지를 실현한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정념은 개인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느끼는 감촉으로 존재한다. 개인은 정치체제가 제시하는 선전·선동의 내용에 대해 정념이라는 여과기를 작동시킨다. 그리하여 호불호에 따라 내용을 선별하고 그것을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짓는다. 요컨대 정념은 정치체제와 대중 사이에 잠재적 여지를 남겨두게 되는데, 이로써 ‘억압적 정권/수동적 대중’이라는 이분법을 탈피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 논문에서는 정념의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드러나는 중국 공산당과 대중 간의 상호 교통의 순간을 조명하고자 한다. 즉 공산당은 대중선전의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대중의 심층을 살피고 그들의 현실과 필요를 읽어냈으며, 대중은 공산당이 제시하는 타개책 및 미래의 청사진에 대해 어떠한 판단과 행동으로 대처했는지를 주시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연구대상은 1930년대 연안에서 생산된 노먼 베쑨(Norman Bethune, 诺尔曼·白求恩)<sup>8)</sup>에 관한 서사들- 뉴스영화, 추도문,

사진 1 노먼 베쑨

독에서의 대중 매체 방송의 의미에 대한 고찰], 임지현·김용우 엮음, 비교역사문화 연구소 기획, 『대중독제2: 정치종교와 헤게모니』, 책세상, 2005, 259~260쪽.

8) 노먼 베쑨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공산당에 가입했으며, 국민보건 의료사업에 종사하다가 1936년 스페인에 가서 반파시스트 투쟁에 가담했다. 항일 전쟁이 발발하자 1938년 중국으로 건너가 의료 활동을 전개했다. 그는 자신의 일생을 홍군과 중국 인민에게 기꺼이 헌납했는데, 중국에서는 그의 뜻을 기리기 위해 ‘노먼 베쑨 정신(白求恩精神)’이란 어휘를 만들어냈다. ‘위대한 국제주의·공산주의 정신’으로 번역된다.

잡지기사이다. 노먼 베쑨는 캐나다인 의사로서 중·일 전쟁 시기 공산당 소속의 기동 의무대 고문으로 활약했던 인물이다. 당시 중국 공산당이 직면한 과제는 사회주의 혁명의 정당성을 증명하고 국가 주체로서의 합법성을 마련하는 일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노먼 베쑨가 처한 ‘외국인’으로서의 위치는 유용하게 여겨졌다. 자아의 기획에 동참하는 타자는 자기에 대한 확신을 강화해줄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탁월한 선전 효과를 지니기 때문이다. 당시 대중매체는 노먼 베쑨의 종군 활동을 지속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국민당에 대한 공산당의 도덕적 우월함과 더불어 일본 파시스트의 도덕적 타락을 증명해냈다. 이에 필자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노먼 베쑨의 혁명에 대한 이상과 열정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중국 공산당의 선전 정책 속에서 소비되었는가? 개인의 물질적인 삶은 어떻게 ‘국제주의 정신’이라는 추상적 영역으로 이동해갔는가? 노먼 베쑨를 다룬 서사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에 기여했는가?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노먼 베쑨 서사들 가운데 출현한 ‘사회주의적 정념’의 양상을 살피고, 그러한 정념이 ‘중화민족’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분석하며, 이 과정에서 구축된 ‘도덕적 명분’이 정치적 효과를 발휘했던 지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 2. ‘분노’의 생산: 공공의 적 만들기

노먼 베쑨는 일개 의무대의 고문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에 관한 사진 및 영상 자료는 상당수인데, 의미심장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연안영화단<sup>9)</sup>의 촬영기사였던 우인씨엔(吳印咸)의 회고에 의하면, 당시 진찰

9) 중국 공산당 소속의 연안영화단은 공산당 근황, 항일전쟁 판도, 국제관계 양상 등을

기 변구의 사령관이었던 니에룽쩐(聂荣臻)이 특별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의사 노먼 베쑨의 업적이 특출하니 영화로 한 번 잘 찍어 보시오.”<sup>10)</sup> 군부는 아예 영화단의 숙소를 노먼 베쑨의 근무지 옆에 마련해 주었다. 연안영화단은 2개월 동안 노먼 베쑨를 좇아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필름에 담았다.

노먼 베쑨에 관한 뉴스영화들은 그가 홍군 병사와 민간인들을 치료하거나 의료 기구를 제작하고 전시 의료서적을 편찬하는 모습들을 다룬다. 하지만 스크린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일본군의 ‘만행’이며, 이때마다 노먼 베쑨가 일본군을 얼마나 증오하는지가 거듭 강조된다. 노먼 베쑨는 전투부대를 따라 최전방에서 의료 활동을 수행했기 때문에 “일본 강도가 저지른 하늘에 사무치는 죄악들을 두 눈으로 직접 볼”<sup>11)</sup> 수 있었다. 전쟁의 참혹한 현장을 목격한 노먼 베쑨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과 심정적으로 동화되었다. 하지만 필자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노먼 베쑨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보편 윤리를 대변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가 아무런 이해관계로 얽혀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본군을 증오한다는 사실은 일본의 중국 침략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는 논리로 귀결되었다. 국제주의자인 노먼 베쑨를 통해 일본 파시스트가 ‘중국인의 원흉’에서 ‘인류의 적’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다음은 다큐멘터리 영화 『노먼 베쑨를 기념하며(纪念白求恩)』의 내레이션이다.

---

필름에 담아 인근 지역을 순회하면서 대중들에게 선보였다. 일개 영화 스튜디오가 제작, 유통, 방영에 이르는 회로망을 총괄한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로 뉴스 및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시사를 접했는데, 그들이 ‘국제적 벗’인 노먼 베쑨의 존재를 알게 된 것도 스크린 위에서였다.

10) 吴筑清·张岱 编著, 『中国电影의丰碑: 延安电影团故事』,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8年, 77쪽.

11) 『노먼 베쑨를 기념하며(纪念白求恩)』(1962)의 내레이션이다.

“일본 파시스트 괴뢰군은 중국의 국토 위에서 전쟁의 포화를 일으켰습니다. 중국 인민은 중국공산당의 지도 아래 적들에 대항해서 신성한 민족자위 전쟁을 전개했습니다.<sup>12)</sup>” (\*진한 활자는 필자 표기)

한 외국인의 시선을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리고 내적인 검증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공분(公憤)’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정념이 출현했다. 사사로운 원한을 탈피하여, 공공의 적을 대상으로 삼는, 도덕적으로 정당한 형태의 분노였다. 분노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냈을 뿐 아니라 그 정체성이 놓이는 사회적 관계까지 새롭게 구조해냈다. 일본군을 향한 분노의 정서가 ‘국민’으로서의 의식을 도발하고 주변 사람들과 ‘국적’을 공유하도록 이끈 것이다. ‘적(敵):일본 파시스트=아(我):?’. 여기서 ?의 자리에 “중국”, “중국인민”, “민족”에 대한 상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식이 오로지 대중의 자발적인 의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당시 국민당, 지주계급, 일본군이 일렬종대를 이루면서 이해를 같이 하는 동안 경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는데, 그 피해의 몫은 고스란히 일반 대중에게 돌아갔다. 단순, 소박했던 대중의 반외세 감정은 현실적인 문제와 결부되면서 구체화되었고, 경제적인 불만은 사회적, 정치적 영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불을 지핀 것이 바로 공산당이었다. 공산당은 대중의 분노를 효과적으로 관리했다. 분노를 통해 못 대중이 지역 간의 유대를 조성하고, 전국적인 저항 운동을 창출하며,

12) 30년대 노먼 베쑨의 전속 촬영 기사였던 우인씨엔은 1962년 중앙 뉴스·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소의 지원 하에 기존의 뉴스영화들을 통합했다. 이 글에서는 1962년 판본의 『노먼 베쑨를 기념하며(紀念白求恩)』를 텍스트로 삼았다. 38~39년도 원본에 대해 가감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인씨엔의 회고록(『难忘的岁月』, 『延安文艺丛书—电影、摄影卷』前言) 및延安영화단의 사적에 관한 위의 저서를 참조하며 대조하였다.

더 나아가 국민적 사명감을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요컨대 정치적 실체로서의 ‘중국’을 ‘나’와 동일시하도록 이끈 것이다.

“우리는 온갖 방법을 다 써서 부상병을 구할 것입니다. 전사들이 싸우는 것은 오늘의 중국을 구제하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내일의 저 **위대하고, 자유로우며, 계급이 없는 신중국**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그 신중국을, 비록 우리가 살아서 보지 못할 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의 행동으로 이미 그 신중국의 탄생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sup>13)</sup> (\*진한 활자는 필자 표기)

위의 인용문은 영화에서 언급된 노먼 베쑨의 발언이다. 그는 ‘외국인’인 자신과 ‘중국인’인 관객을 “우리”라는 공동체로 묶어내면서 투쟁의 궁극적 목표가 “오늘의 중국”을 구제하고 “내일의 신중국”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설파한다. 공산당이 노먼 베쑨의 입을 빌려 본격적으로 국가주체의 자리를 욕망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10년 후인 1949년, 마오쩌둥을 위시한 중국 공산당은 변방의 한 도시를 뒤로 하고 중국의 심장부인 베이징에 입성함으로써 그 욕망을 실현했다.

공산당이 국가주체로 등극할 수 있었던 것은 내셔널리즘을 효과적으로 다루어냈기 때문이다. 영화 『노먼 베쑨를 기념하며(紀念白求恩)』에서 일본군이 ‘공공의 적’으로 지목되는 것과 동시에 또 다른 ‘적’들인 국민당과 지주 계급은 자취를 감춘다. 당시 공산당과 국민당은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통일 전선을 결성했으니, 바로 제2차 국공합작(1937.9~1945.8)<sup>14)</sup>이었다. 그러나 당시 국민당의 태도는 애매모호했는데, 대중의 반외세 감정에 압도된 나머지 공산당과 연대 형식을 취하긴 했으나 일본군과 결연히 대적할 의지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산

13) 다큐멘터리 영화, 『노먼 베쑨를 기념하며(紀念白求恩)』, 1962.

14) 제1차 국공합작(1924.1~27.7)은 북방의 군벌과 그 배후에 있는 제국주의 열강에 대항하기 위하여 맺어진 것으로 국민혁명(북벌)을 촉발했다.

당은 자못 포용적인 자세로 국민당을 대했으며, 이는 계급의 적인 지주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공산당은 야심차게 추진해온 토지개혁을 수행함에 있어서 갑자기 온건한 태도로 일변했는데<sup>15)</sup>, 일본 침략자에 대한 투쟁에서 빈농과 중농 뿐 아니라 부농과 지주 계급까지도 끌어들이기 위해서였다. 전체의 이익이 지켜지는, “위대하고 자유로우며, 계급이 없는” 국가라면 따를 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최후의 부상병 한 명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지 또한 못 대중을 감복시키는 바가 있었다. 대중은 공산당이 내건 ‘국토 수호’와 ‘인민 보호’라는 구호에 기꺼이 동의했다. 그리하여 공산당이 제시한 “신중국” 프로젝트에 한 표를 던졌다. 봉건사회에서 천명이 그러했다면, 20세기 중국에서는 내셔널리즘이 정치권력의 정통성을 결정지은 셈이다.

---

15) 옌안 시기 중국 공산당은 지주의 재산을 완전히 몰수하는 대신 소작물을 인하하는 정책을 취했다. 소작료가 추수한 곡식의 1/3을 넘지 않도록 했으며 기존에 농민을 착취해왔던 많은 비합법적 수단을 폐지했다. 이로써 지주와 빈농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사회계층을 포섭할 수 있었다.

### 3. 애도에서 ‘우애’<sup>16)</sup>로: 민족주의와 국제주의

의사 노먼 베쑨는 중국 인민들의 수호자였다. 그가 기동 의무대를 이끄는 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홍군 병사들은 “우리에게는 바 이치우언(白求恩)<sup>17)</sup>이 있다!”라고 외치며 적진을 향해 달려 나갔다. “코쟁이 외국인 의사”의 이야기는 노래로 만들어져 빨치산들 사이에 구전되었으며, 의사라고는 본 적이 없는 벽촌에서도 언젠가 그가 병자들을 고치러 올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sup>18)</sup>

노먼 베쑨는 “중국 인민의 의사, 교사, 친구”<sup>19)</sup>로 불리며 수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당시 노먼 베쑨가 연안에 머문 유일한 ‘외국인 친구’였던 것은 아니다. 비교적 인지도가 있는 에드가 스노우(Edgar Parks Snow)를 비롯해서 저널리스트 헬도어 헨슨(Haldore Hanson), 군사 전문가 오토 브라운(Otto Braun), 선교사 아그네스 스메들리(Agnes Smedley), 의사인 조지 하템(George Hatem), 리처드 브라운(Richard Brown), 코트니스(Kotnis) 등이 혁명에 대한 이상을 품고 연안을 찾았다. 하지만

16) 가라타니 고진은 프랑스 혁명의 모토인 ‘자유’, ‘평등’, ‘우애’를 분석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적 경쟁을 타당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자유이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분쟁, 계급적 갈등, 대중의 불만을 무마하는 것이 평등이다. 즉 자유와 평등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들로서 근대 사회의 불안을 초래한다. 하지만 마지막에 등장하는 우애는 자유와 평등의 모순을 해결하고 사회적 위기를 소거, 혹은 지연시킨다. 우애는 감성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제도화될 수 없는 성질을 띤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된다. 우애는 ‘상상적인 것일 뿐이라는’ 맑스의 비판은 타당하지만, 이 상상은 실천적 역량뿐 아니라 정치적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가라타니 고진은 자본주의 사회를 배경으로 ‘우애’를 거론했지만 중국을 대상으로도 이 개념 틀은 상당히 유효하다.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옮김, 『자유·평등·우애』, 『문자와 국가』, 도서출판 b, 2011을 참조함)

17) 노먼 베쑨의 중국어 이름.

18) 테드 알렌·시드니 고든 지음, 천희상 옮김, 『닥터 노먼 베쑨』, 실천문화사, 2012, 44쪽.

19) 위의 책, 439쪽.

그 가운데 ‘진정한 국제적 벗’으로 명명되고 현재까지도 부단히 회고되는 사람은 노먼 베쑨뿐이다. 그 원인은 다각도로 설명될 수 있겠다. 우선 베쑨의 인간적인 매력은 못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는 대중연설가로 활동했을 정도로 언변이 뛰어났으며, 항상 주위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다감한 모습을 보였고, 그림과 음악을 사랑하는 예술가적 면모까지 갖추고 있었다. 한편 보헤미안에서 혁명가로 변신한 그의 삶은 드라마틱한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 유능한 의사였던 그는 영국 소호에서 댄디하게 차려입고 예술품 오퍼상으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빈민가에서의 환자를 치료하던 도중 사회의 부조리함을 깨닫고 사상적으로 크게 전회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사가 오가는 전장에서 일본일초를 다투며 생명을 구해낸 그의 행적은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제공했다. 그에 관한 다큐멘터리는 마치 한 편의 전쟁영화처럼 스틸감과 박진감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하지만 상술한 원인들을 차치하고 그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마오쩌둥의 추도문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

던 것을 발견하게 된다.

마오는 1939년 12월 21일 발표한 『노먼 베쑨를 기념하며 (紀念白求恩)』에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의 헌신적인 삶을 칭송했다. 의료 활동에서의 적극성, 고도로 훈련된 기술, 중



사진 2 니에룽쥘 사령관(좌3)과 노먼 베쑨(우5) 및 여러 국제 인사들

국 인민에 대한 열정 등이 열거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노먼 베쑨의 미덕을 꼽아가던 마오가 돌연 중국인의 ‘그릇된 태도’를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쉬운 일만 골라서 하고, 힘든 일은 회피하며, 무거운 짐을 남에게 미루고 가벼운 짐만 골라서 메는데”, “동지들을 대함에 있어서 가슴 가득한 열정이 없는, 즉 냉정하고 무관심하며, 무감각한 태도”는 마땅히 반성해야 할 성질의 것이었다. 마오는 대중을 향해 “모든 인민에게 유익한 인간”이 될 것을 독려했다. 노먼 베쑨이 중국인들을 향해 발산한 우애의 정서를 내부로 투사하여 중국 인민들끼리도 서로 아끼고 보살필 것을 주장하는 대목이다.

마오는 노먼 베쑨의 이타적인 삶을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세 가지 덕목을 짚어냈다. 바로 “고상함”, “순수”, “도덕”이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인 덕목들은 곧 정치적 목적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 “한 명의 외국인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중국 인민의 해방을 자신의 과업으로 삼았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이어지는 다음 구절은 다분히 문제적이라 하겠다.

“이것은 어떤 정신입니까? 이는 국제주의적 정신이며 공산주의적 정신입니다. 모든 중국 공산당원은 이러한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레닌주의에 따르면, 자본주의 국가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식민지·반식민지 인민의 해방 투쟁을 옹호해야 하고, 식민지·반식민지의 프롤레타리아트는 자본주의 국가의 프롤레타리아트를 옹호해야 합니다. 세계혁명은 이런 연후에야 비로소 승리할 수 있습니다.<sup>20)</sup>”

마오는 노먼 베쑨이 구현한 국경을 초월한 인류애에서 공산당의 이상적 목표인 국제주의를 환기해내며, 그 근거로서 레닌의 말을 인용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정작 레닌은 이미 노선을 바꾸어 탄 지 오래라는 점

---

20) 毛泽东, 『纪念白求恩』, 1939, 12.

이다.<sup>21)</sup> 레닌이 주도하던 1920년 제2차 코민테른에서 소련 공산당의 중앙집권화가 시작되었고, 이듬해 치러진 제3차 코민테른에서는 소비에트 국가들이 노골적으로 이해타산을 드러내는 가운데 세계혁명이 공식적으로 철회되었다.<sup>22)</sup> 그러나 10년 후 중국에서 이색적인 풍경이 전개된다. 공산주의 진영에서 국제주의가 이미 한물 간 것으로 여겨지던 시점에 마오가 뒤늦게 “국제주의 정신”을 주창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시간의 격차는 소련과 중국의 입장 차이를 드러낸다. 소련 공산당은 일찍이 10월 혁명을 통해 해계모니를 장악했으며, 30년대에 들어서에는 국가 권력을 확장함으로써 공산 진영 가운데 안정적 위치를 확보하는 데 치중했다. 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 후발대로서 안팎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따라서 전 세계 사회주의 국가 및 진보 세력들과의 연대를 추진했다. 그것만이 생존의 방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에서 제기된 국제주의의 배후에는 내셔널리즘적인 열망이 잠재되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일체의 자본주의 국가의 무산계급과 연합해야 합니다. **일본**, 영국, 미국, 독일, 이탈리아를 비롯한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무산계급과 연합할 때 비로소 제국주의를 타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과 인민을 해방시키는 것이 세계의 민족과 인민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국제주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편협한 민족주의와 편협한 애국주의**를 반대함으로써 다다르게 되는 국제주의입니다.” (\*진한 활자와 밑줄은 필자 표기)<sup>23)</sup>

21) “만국의 프롤레타리아트여, 단결하라!” 이는 맑스·엔겔스가 1848년 발표한 『공산당 선언』의 마지막 구절이다. 초기 공산당의 목표는 노동자 계급이 주도하는 혁명을 통해 자본주의 국가를 철폐하고 새로운 국제사회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후 국제주의는 전 세계 공산당 운동의 모토로 운용되었다. 그러나 이념과는 별도로 공산당 활동을 조직하는 과정에서 국제주의는 점차 퇴색된다.

22) 1921년 크론스타트 봉기의 진압, 신경제정책의 도입, 영소무역협정의 조인, 1922년 소독 비밀 정치협정 가결 등 ‘불미스러운 사건’들은 국제주의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켰다.

마오는 세계혁명의 맥락 가운데 중국혁명을 위치시킨다. 하지만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중화민족, 중국 인민의 해방을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선행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마오가 소련 공산당 및 ‘28인의 불세비키’와 갈라서는 지점으로서, 마오에게 있어 최종적인 목표는 역시 중국의 해방이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그러나 여기서 국제주의와 내셔널리즘을 대척지점에 놓고 중국 공산당이 선택한 것은 후자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주의와 내셔널리즘의 착종관계를 단순화하고 중국 특유의 내셔널리즘을 간과하게 만든다. 마오 역시 내셔널리즘과 국제주의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것을 처리하고자 숨씨를 발휘한다. 마오는 반복해서 “연대”를 강조하는데, 놀라운 것은 항일 전쟁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무산계급과의 연대까지도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그는 내셔널리즘을 사회주의 코드에 따라 절합(articulate)해낸다. 미래 국가의 청사진 속에서 중국을 전 세계 핏박 받는 프롤레타리아트들의 대표자로 그리고 있으며, 이로써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편협한 민족주의”, “편협한 애국주의”와 차별화했다. 그리하여 중국 공산당이 추구하는 내셔널리즘은 면죄부를 얻게 되었다. 중국 대륙에서 ‘네이션’은 역설적이게도 ‘인터네이션’으로서 그 존립이 모색되었던 것이다.

#### 4. ‘숭고’한 사명: 사회주의 전사의 양성

『팔로군 군정 잡지』제 12기<sup>24)</sup>는 “국제적 벗”인 노먼 베쑨를 애도하기

23) 毛泽东, 『纪念白求恩』, 1939, 12.

24) 『哀悼国际友人诺尔曼·白求恩博士特辑』, 『八路军军政杂志』第12期, 国民革命军十

위해 특별 기사를 게재했다. 이 기사는 네 부분으로 나뉘는데, 우선 편집부가 노먼 베쑨를 삶을 조명한 후에, 중국 공산당이 공식 발표한 “노먼 베쑨 가족을 위한 위문 전보<sup>25)</sup>”, 노먼 베쑨이 니에룽췌 사령관에게 제출한 보고서 전문, 노먼 베쑨에게 치료를 받았던 홍군 사병의 회고록이 차례로 이어진다. 한 인간에 대한 기억은 늘 흥미로운데, 그의 삶 가운데 일부가 특별하게 조명됨으로써 기억하는 자의 욕망을 고스란히 드러내기 때문이다. ‘진찰기 변구 기동의무대 의약 고문’, 이는 노먼 베쑨의 공식 직함이다. 하지만 이 잡지는 “중국 항전에 대한 그의 공헌”을 “의료 업무에 한정시키지 않고” “위대한 정신”으로 확대해나간다.<sup>26)</sup> 편집자는 “차마 필묵으로는 그의 공적을 묘사하기 어렵다”<sup>27)</sup>고 토로하는데, 그가 다루는 것이 한 인간의 평범한 삶이 아니라 중국 인민의 거대한 상상이었기 때문이다.

노먼 베쑨에 관해 소개되는 일화들은 다음과 같은 사회주의적 덕목을 제시했다. 끝없는 투쟁과 영웅적 희생, 자기 부정, 근검, 용기, 이기심의 배제 등이었다. 첫 번째 예화, 그는 하루에 두 서너 시간을 자며 극히 소량의 식사만을 고집했다. 그러나 부상병을 치료하기 위해 십리 길도 마다하지 않으며 연속 30건의 수술도 쉬지 않고 치러냈다. 혁명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면서이다.<sup>28)</sup> 두 번째 예화, 그는 조수들이 제대로 일을 처리하지 못할 때면 불같이 화를 내며 호통을 치곤 했다. 그러나 그 본성이 겸허했기에 곧 자신의 과박함을 반성하고 사죄했다. 사회주의적 인간은 어떻게 자신의 인성을 고양하는가? ‘자아비

八集团军(八路军)政治部出版, 1939年12月, 97~105쪽

25)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주더(朱德)와 평더화이(彭德怀), ‘연안 각계 노먼 베쑨 추도 기획위원회’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26) 『八路军军政杂志』第12期, 98쪽.

27) 『八路军军政杂志』第12期, 98쪽.

28) 『八路军军政杂志』第12期, 103쪽.

판’이라는 사회주의 생활양식의 실천을 통해서이다.<sup>29)</sup> 세 번째 예화, 그는 마을 주민들이 사례의 표시로 가져온 달걀을 모두 부상병에게 먹였다. 한편 그의 공로를 인정한 마오가 매달 100위안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는데, 한사코 불사하던 노먼 베쑨는 몇 번의 간청 끝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만, 결국 전액을 부상병을 위로하기 위한 담배와 식료품을 사는데 써버렸다. 사회주의 동지들은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가? “동정심”과 “우애정신”을 발현해야 한다.<sup>30)</sup> 이 밖에도 고된 업무로 쉼 없이 안 된 나이에 하얗게 세어버린 머리카락과 수염, 낡은 홍군 군복, 다 헤진 신발 등을 묘사하는데<sup>31)</sup>, 그의 육체 자체가 중국 공산당이 선호하는

금욕적 가치들을 재현하는 기호였기 때문이다.

옌안에서 싹튼 ‘노먼 베쑨 정신(白求恩精神)’은 공산당의 선전에 의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었다. 변방으로 쫓겨난 공산당이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선 대중의 헌신적 행위가 필요했다. 따라서 공통의 사유 방식 또는 행동 방식을 만들어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혁명의 가치만을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은 공



사진 3 노먼 베쑨이 1937년 하북성의 야전병원에서 수술하는 장면. 베쑨의 헌신적 삶을 포착한 이 사진은 기념우표로 제작되기도 했다.

29) 『八路军军政杂志』第12期, 104쪽.

30) 『八路军军政杂志』第12期, 104쪽.

31) 『八路军军政杂志』第12期, 104쪽.

허해질 위험이 있었다. 만약 정신적 가치를 구현하는 모델이 있다면 못 대중은 좀 더 수월하게 그 가치들을 내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지목된 것이 노먼 베쑨이었다. 그는 탁월한 사회주의 모델이었다. 그의 투쟁적 삶은 대중들의 교과서가 되기에 모자람이 없었고, 그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은 오히려 생산된 혁명적 가치들을 보편타당한 것으로 만들었다.

『팔로군 군정 잡지』에서 전개되는 노먼 베쑨의 일대기는 그의 수혈 행위로 말미암아 절정에 치달으며 ‘순사(殉死)’ 장면으로 종지부를 찍는다. 노먼 베쑨는 죽어가는 병사에게 자신의 피를 뽑아 수혈한다. 잠시 후 회복의 기미를 보이는 병사 앞에서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곁에 있던 의무대원들과 농민들은 반성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정작 동포인 자신들은 미신적 공포로 수혈하기를 꺼렸기 때문이다. 깨달은 바가 컸던 중국 인민들은 외쳤다. “우리가 수혈대를 조직해서 우리의 병사들을 지키겠어요!”<sup>32)</sup> 노먼 베쑨는 흐뭇해하면서도 “수천만 대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라!”<sup>33)</sup>라고 타이르지만, 결국 본인은 그 수천만 대중을 위해 생명을 바치게 된다. 일본군이 곧 들이닥치리라는 소식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수술에 전념하던 노먼 베쑨가 불안해진 조수들의 재촉으로 손가락을 베게 되는데, 이 작은 상처가 끝내 패혈증을 일으켜 1929년 11월 13일 새벽 숨을 거둔 것이다.

노먼 베쑨는 죽음으로써 ‘혁명의 성자’로서의 정체성을 완성했다. 그는 “圣手(성스러운 손)”으로 일컬어지기 시작했는데<sup>34)</sup>, 이 어휘는 중국어에서 ‘명의’를 뜻한다.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다루는 의사에 대해 존경

32) 『八路军军政杂志』第12期, 104쪽.

33) 『八路军军政杂志』第12期, 105쪽.

34) 『八路军军政杂志』第12期, 97쪽.

을 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먼 베쑤에게로 와서 “圣手”의 의미는 변전되었다. 노먼 베쑤를 “圣手”라 칭한 것은, 그가 생명보다도 귀중한 혁명 정신의 본질을 사수했기 때문이다. 이제 생명은 그리 아쉬운 것이 아니었다. 대장정에 이어 옌안에서 일본군과 전쟁을 치러내는 동안 사망자가 속출했다. 가족들이, 동지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오히려 죄책감을 낳았으며, 이와 동시에 민족적 사명감을 불러일으켰다. 핍박 받으며 욕되게 사느니 ‘숭고한 대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값지게 여겨지기 시작했다. 빛나는 혁명의 구호와 비장한 영웅의 죽음은 ‘중화민족’에 대한 종교적 헌신을 유도했다. 오로지 ‘중화민족’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기꺼이 죽고자 하는 사회주의 전사들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섰다.<sup>35)</sup>



사진 4 노먼 베쑤의 사망 직후의 모습    사진 5 노먼 베쑤 추도회 장면

\* 옌안영화단의 촬영기사 우인씨엔은 베쑤의 사망소식을 듣고 곧바로 출동하여 그의 마지막 모습과 추모행사 장면을 엮어 뉴스영화로 제작해냈다.

35) 네이션과 종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옮김, 『제국과 네이션』, 『문자와 국가』, 도서출판 b, 2011, 11~41쪽을 참조함.

## 5. 정치적 무기로서의 '도덕'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sup>36)</sup>은 국민당의 공격으로 3년 만에 퇴각했다. 8만 명의 홍군 병사는 근거지였던 장시 성을 뒤로 하고 귀양 가다시피 서북 지역으로 이동했다. 소위 '대장정'이라 불리는 고난의 행보 중에 그들은 추격해오는 국민당 군사들뿐 아니라 혹독한 자연환경 및 기아와도 싸워야 했다. 그리하여 옌안에 도달한 병사들은 고작 1만여 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옌안에서의 10년 동안 그들은 100만 병력의 강력한 군대로 성장했으며 승리를 확신했던 국민당을 참패하게 만들었다. 이는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후대의 연구자들은 공산당을 향한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sup>37)</sup> 이 글에서 그러한 대중의 지지가 어떻게 가능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만약 공산당의 선전 정책이 탁월했던 까닭이라면 당시의 대중선전은 도대체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마오쩌둥은 인간의 정신으로 어떠한 물질적 장애든지 극복할 수 있으며 어떠한 역사적 현실이라도 창조해낼 수 있다고 믿었다. 이는 마르크스의 결정론적 교의와는 위배되는데, 마르크스가 역사 발전의 객관적인 힘을 믿었던 반면 마오에게 있어서 관건이 되는 것은 의지와 행동이었던 것이다. 마오는 혁명적 의식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그러한 의식의 주체인 대중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대중이 가진 힘을 동원해 내려면 우선 그들을 단일한 공동체로 통합할 필요가 있었다. 마오를 위시한 공산당은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하는 주요기제를 구축하는 한편 별도의 정념적 기제를 작동시켰다. '공분(公憤)'·'우애'·'숭고'라는 정

36) 1931년 11월, 중화소비에트 공화국이 출범했다. 루이진(瑞金)을 수도로 삼아, 약 600만 인구가 거주하는 장시 성 일대의 지역을 관할했다.

37) 모리스 마이스너, 김수영 옮김,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1』, 이산, 2004, 63~91쪽 참조.

념의 삼중주는 대륙에 거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군이라는 적을 공유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사회주의 대국’을 향해 매진하도록 이끌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1930년대 연안에서 출현한 정념이 도덕적 양식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다. ‘정념’은 감성적 영역에 속하는 반면 ‘도덕’은 윤리적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 둘은 각각 독자적인 영역을 지니고 있으나 노먼 베쏰을 둘러싼 서사들에서 양자는 상호 연동하는 가운데 정념이 도덕으로 고착되는 양상을 보였다. 정념은 본래 개별적인 감촉으로 출현한다. 즉 한 인간이 자신의 내부로부터 느끼는 흥취, 희로애락, 고통과 환희이다. 하지만 정념은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과정에서 집단적 규범의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예컨대 일본군에 대해 분노감을 표시하면 중화민족의 구성원으로 인정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구성원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다. 개별적 정념에서 집단적 규범으로의 이행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곳은 도덕적 양식이다. 도덕은 보편적 윤리로 작동하면서 내부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한편 외부로 향해서는 강력한 무기로서 사용되었다. 중국 공산당은 자신을 도덕적 정치-주체로 내세움으로써 일본 파시즘을 ‘사악’한 무리로 간주했으며 일본의 침략을 묵인, 더 나아가 동조까지 했던 국민당과의 싸움에서 결국 승리를 거두었다.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은 천안문의 성루 위에 올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했다. 국민당을 지원했던 미국, 중국 공산당을 반신반의했던 소련을 비롯해서 전 세계 국가에서는 놀랍다는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불가사의한 일이 역사적으로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공산당이 일찍이 근대 역사주체로서의 대중의 역량을 간파하고 그들로부터 심정적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도덕적 명분을 구축하는 데 주력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다큐멘터리 영화 『紀念白求恩』, 감독 우인씨엔(吳印咸), 중앙 뉴스·다큐멘터리영화 제작소, 1962.
- 毛泽东, 『紀念白求恩』, 1939, 12.
- 「哀悼国际友人诺尔曼·白求恩博士特辑」, 『八路军军政杂志』第12期, 国民革命军十八集团军(八路军) 政治部出版, 1939年12月.

### 2. 논문과 단행본

- 김수영, 「코민테른 제 2-3차 세계대회의 조직원칙과 국제주의 이념」, 『中國史研究』 第57輯, 2008, 12.
- 막심 로댕송 / 르네 갈리소, 김석진 번역, 「민족, 민족주의, 국제주의」, 『이론』, Vol.-No.-, [1994]
- 서관모, 「국제주의, 민족주의와 공산주의」, 『社會科學研究』, 27(1). 2010.
- \_\_\_\_\_, 「계급, 국가, 국제주의」, 『社會科學研究』, 28(1). 2011.
- 김세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운동의 궤적과 전망」, 『진보평론』 제17호, 2003년 가을호.
- 테드 알렌·시드니 고든 지음, 천희상 옮김, 『닥터 노먼 베크슨』, 실천문화사, 2012.
- 임지현·김용우 엮음,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기획, 『대중독재2: 정치종교와 헤게모니』, 책세상, 2005, 259~260쪽.
- 모리스 마이스너, 김수영 옮김,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1』, 이산, 2004.
- 헨리 키신저, 권기대 옮김, 『헨리 키신저의 중국 이야기』, 민음사, 2012.
- B. 스피노자, 강영계 옮김, 『에티카』, 서광사, 2012.
- 안토니오 네그리, 이기웅 옮김, 『전복적 스피노자』, 그린비, 2005.
- 질 들뢰즈, 박기순 옮김, 『스피노자의 철학』, 민음사, 2012.
- 가라타니 고진, 조영일 옮김, 『문자와 국가』, 도서출판 b, 2011.
- \_\_\_\_\_, 조영일 옮김, 『네이션과 미학』, 도서출판 b, 2009.
- 효도 히로미, 문경연·김주현 옮김, 『연기된 근대·국민의 신체와 퍼포먼스』, 연극과 인간, 2005.
- 슬라보예 지젝, 이수련 역,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 인간사랑, 2001.
- 刘少奇, 『刘少奇论国际主义与民族主义』, 人民出版社, 1954年12月.
- 李洁非·杨洁, 『解读延安—文学、知识分子和文化』, 北京, 当代中国出版社, 2010.

吴筑清·张岱编著, 『中国电影의丰碑—延安电影团的故事』, 北京,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8.

Carl J. Friedrich·Zbigniew K. Brezinski, *Totalitarian Dictatorship and Autocracy*, Cambridge: Havard Univ. Press, 1965, p. 10.

### 3. 사진자료

사진1: 테드 알렌·시드니 고든 지음, 천희상 옮김, 『닥터 노먼 베클』, 실천문화사, 2012, 표지.

사진2: 吴筑清·张岱编, 『中国电影의丰碑—延安电影团的故事』, 北京,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8, 112쪽.

사진3: 테드 알렌·시드니 고든 지음, 천희상 옮김, 『닥터 노먼 베클』, 실천문화사, 2012, 8쪽.

사진4: 吴筑清·张岱编, 『中国电影의丰碑—延安电影团的故事』, 北京,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8, 114쪽.

사진5: 吴筑清·张岱编, 『中国电影의丰碑—延安电影团的故事』, 北京, 中国人民大学出版社, 2008, 114쪽.

## Abstract

### Affective Reconstitution of 'Zhonghuamizu'

— A Study on Descriptions of a Saint Norman Bethune  
in Yanan of the 1930's

Lee, Seung-Hee (Hanyang University)

On this study, I will consider processes of reconstitution of 'zhonghuamizu(中华民族)' through affections in Yanan(延安) of the 1930's. At that time, the Chinese Communists aroused nationalist emotions of the public through movies, magazines, posters, and all sorts of cultural events and made them as power of the anti-Japanese movement and a socialist movement. Among them, based on descriptions- news, movies, memorial writings, and magazine articles of Norman Bethune, I will study how the Chinese Communists strengthened bonds between members with a position of 'a foreigner' of him. In other words, I will analyze processes of making 'a public enemy', the Japanese army, by producing 'anger', of recalling 'zhonghuaminzu' by invention of 'fraternity', of promoting class solidarity of the world, and of raising lots of individuals as socialist warriors, who resided in the continent, by developing 'sublimity'. 'Affection' originally means excitement, joy, anger, sorrow, and pleasure, pain, and delight felt from the inner side of an individual. However, according to the descriptions of Norman Bethune, the individual affections started to become collective standards, and finally showed a tendency to set in as ethical patterns. On this study, following these processes of flowing, I will reveal that the reason why the Chinese Communists could achieve the last victory even in materially poor circumstances was that they built ethical justifications by penetrating capabilities of the public and managing affections.

(Key Words : Norman Bethune, public propaganda, affections, anger, fraternity, sublimity, antiimperialism, nationalism, socialism, internationalism, 'zhonghuaminzu', ethical justifications)

학술대회 발표일: 2012년 11월 3일 대중서사학회 정기학술대회 기획발표

투고일 : 2012년 10월 29일 투고

심사일 : 2012년 11월 5~23일 심사

수정보완일 : 2012년 12월 3일 수정제출

게재확정일 : 2012년 12월 10일 게재확정